

"투표함 못 옮긴다"…잠실7동 투표소서 선관위·주민 대치, 경찰 협조 요청

등록 2026.06.03 23:18:14 | 수정 2026.06.03 23:20:04



[서울=뉴스시스] 배훈식 기자 = 제9회 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2026.06.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스시스]최은수 한은진 기자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3일 밤 주민 수십명이 투표소 앞에 모여 투표함 반출 중단과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개표 무효"를 외치며 투표함 반출에 반발하고 있다.

3일 뉴스시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가 밤 10시까지 연장됐지만, 이후에도 투표함 반출과 투표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회수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투표소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6시 전 줄을 섰지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연장 결정 이후에도 혼선은 계속됐다. 현장에서는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던 주민들 가운데서도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나왔고, 주민들은 "대기표를 받았는데 왜 투표를 못 하느냐", "기준이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함 반출을 우려하는 주민들까지 투표소 앞으로 몰리면서 현장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날 오후 9시30분께 투표소 앞에는 수백명의 주민과 유권자들이 모인 가운데 투표 종료를 둘러싼 항의와 실랑이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몇 시까지 투표가 가능한 것이냐", "투표하러 왔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며 선관위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주민들은 투표함 반출을 우려하며 투표소 주변에 모여 있기도 했다. 한 남성은 주민들에게 "투표함을 밖으로 옮기게 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후 9시54분께에는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주민이 나오자 현장에 모인 주민들이 항의했고, 일부는 "투표하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고성을 질렀다.

오후 10시를 전후해서는 분위기가 더욱 격앙됐다. 일부 주민들은 "개표 무효", "투표 무효" 구호를 외치며 박수를 쳤고, "투표함은 누구도 옮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선관위 해체"를 외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는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며 투표함 반출에 반대했다.

한 남성은 손가락 욕설을 하며 거친 언행을 이어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10시를 넘어서도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상황을 관리하며 만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인근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동별로는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 잠실7동, 문정2동, 청담동, 구의3동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gold@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